법화경 100만독, 코로나 극복 원동력되다

천태종 광명사 1월 25일 법화경100만 독송 회향

〈초심자 천태소지관〉의 강좌
기도 · 교육, 균형 유지 눈길
"정진으로 업을 지우는 시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법화경 100만독 독송을 회향했다. 법화경 독송 정진을 통해 불자들은 힘든 코로나 기간을 견디고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광명사(주지 개문)는 1월 25일 '법화경 독송 100만독 정진'을 회향했다. 법화경 독송은 지난 해 10월 15일 입재했으며 하루 1만독 독송으로 총 100일 간 100만독 정진으로 진행됐다. 하루 평균 4시간이 걸리는 독송기도로 참가한 불자들은 코로나 기간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집과 법당에서 각각 수행했다.

광명사는 매주 토요일 총 15회에 걸쳐 〈초심자를 위한 천태소지관〉 특별강좌도 진행했다.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이 법사 스님을 맡아 교육을 진행했다.

〈초심자를 위한 천태소지관〉은 천태지자대사의 〈약명개몽초학좌선지관요문(略明開矇初學坐禪止觀要門)〉을 광도 스님이 번역한 책으로 초심자들이 좌선하며 지관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또, 천태종의 핵심사상인 〈지관止觀〉을 밝힌 천태지자대사의 원문을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경〉에 의거하여 알기 쉽게 번역해 두었고, 일반 신도들의 눈높이와 수행의 실천 등을 포함하여 지관에 대해 밝히고 있다. '천태소지관'은 천태종의 주요 교리 가운데 〈공가중(空假中)-삼제원융〉 사상 중 〈공(空)〉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돕는 공부의 첫 입문서이다.


광명사는 1월 25일 '법화경 독송 100만독 정진'을 회향했다. 사진은 1월 23일 진행된 천태소지관 강의 회향법회 모습.

회향에 앞서 1월 23일 광명사는 '천태소지관' 강의를 회향했다. 회향 강좌에서 광도 스님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고 독송 기도를 해온 불자들에게 "뛰어난 수행 근기를 가진 광명사 불자들"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인간들의 업이다. 업을 소멸하는 방법은 수행이며 기도이다. 코로나처럼 힘든 시기에 불자들이 더욱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광도 스님의 '천태소지관' 강의는 광명사 불자들 뿐 아니라 전국 천태 불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유튜브 천태종 부산광명사에서는 높은 조회수를 보였고 교재 〈초심자를 위한 지관(止觀)〉은 매주 구입 요청이 쏟아졌다.

이번 광명사 법화경 100만독 독송정진은 기도와 정법으로 균형 잡힌 수행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불자들은 독송에 동참하며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힘든 시간도 잘 극복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은(56 · 부산 동래구) 불자는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독송기도를 하는 동안 정말 근심이 사라진다. 잡념이 안 생기고 편안함을 느낀다"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느끼니 스스로 찾아서 하고 진실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춘옥(63 · 부산 해운대구) 불자도 "기도 전에는 건강이 안 좋아 불안하고 근심이 많았는데 건강을 되찾았다"며 "제가 건강해지니 가족 모두 평안해지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정말 신장님들이 보호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환희심을 피력했다.

이번 법석은 주지 개문 스님의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1월 25일 천태종 주지 인사 발령으로 타 사찰에 임명됐다. 불자들은 주지 스님과 그동안 강의를 해준 광도 스님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올렸다. 법회를 마치고 나가는 길을 불자들이 양 쪽으로 서서 합장하고 박수치며 고개를 숙였다.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며 불자들은 합장했다.

주지 개문 스님의 마지막 인사말은 다름 아닌 정진에 대한 당부였다.

개문 스님은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가 된다. 법화경을 만나면 여러분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된다"며 "100만독 기도불사와 감로법문인 천태소지관 강의를 듣는 것이 큰 공덕이다. 이차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성취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사단 부산 대중공양 회향

조계종 부산포교사단(단장 정분남)은 1월 27일 범어사에서 '동안거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부산포교사단 지난 해 11월 30일 부터 70일간 법화경 독송 정진기도를 이어왔다. 부산포교사단 산하 각 팀은 매일 릴레이 형태로 동참해 법화경 독송 기도를 진행했으며, 2월 7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부산포교사단은 코로나 기간에도 수행정진을 잊지 않기 위해 독송기도를 강조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하안거에 이어 두 번째 독송 기도이다.

회향에 앞서 부산포교사단은 승가를 위한 대중공양을 올리며 스님들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중공양금은 각 팀에서 기도 중 보시한 기도비로 마련됐다. 부산포교사단은 꼬마김밥, 유부초밥, 버섯탕수육, 호떡 등 특식을 직접 조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포교사단은 1월 27일 범어사에서 '동안거 대중공양'을 실시했다.

부산 천불정사서 국가고시생 감사인사

부산 천불정사에 5급 국가고시 합격생들이 방문해 감사 인사를 올렸다. 천불정사가 5급 국가고시를 위해 후원하고 있는 부산대 고담정, 신목정, 기맥정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다.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1월 27일 국가고시 합격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천불정사 내 법당에서 마련했다.

고담 스님은 행정 · 기술 고시에 최종 합격 한 최연석(경제학과 12학번), 조현진(전기공학과 14학번), 김일(전기공학과 08학번) 학생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건강을 기원했다.

고담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던 바를 성취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학교에 큰 선물을 안겨줬다"며 "자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앞으로도 맡은 직분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불정사 고담정은 5급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이며 신목정과 기맥정은 학생들의 독서실로 부산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1월 23일 법당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장 시상식을 진행했다. 표창장은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적극 동참한 공로로 신희숙 교정위원이 수상했다.


천불정사는 1월 27일 국가고시 합격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천불정사 내 법당에서 마련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주최하는 연말 시상식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취소돼 고담 스님이 대리 수령해 전달한 자리이다.

수상한 신희숙 교정위원은 "전수식에 함께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교정교화 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소외 이웃 위해 급식 · 기부

"한수행 자비 나눔 실천 위해 노력"

재단법인 신뇨엔이 자비나눔으로 보살도를 실천했다. 신뇨엔은 현재 한수행 기간이다. 수행기간 동안 참회 기간을 거친 후 자리이타를 통한 보살행을 중요 덕목으로 삼는다. 신뇨엔의 자비나눔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외 이웃들에게 회향됐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은 1월 22일 효심사 7층 무료급식소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효심사에서 진행하는 무료급식 나눔 도시락에 후원되며 매달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효심사는 매주 금요일 소외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 나눔 도시락 50인분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락은 관내 동사무소에 전달되며 반찬 3가지와 국, 과일 및 떡 등 각종 음식을 소포장해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뇨엔은 성금 전달을 통해 한수행의 자비나눔 실천을 강조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경 국원은 "한수행 실천 자비 나눔의 일환이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분들이 효심사의 정성스런 도시락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힘든 상황을 같이 나누고 싶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효심사 주지 효문 스님은 "신뇨엔 불자에게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이 많이드는데 이런 시기에 관심을 가져줘 더욱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나은 음식을 제공 하기 위해 더 노력 할 것이다"고 인사를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은 1월 22일 효심사 7층 무료급식소에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남 파라미타 2021년 새 출발 다짐

(사)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도문 · 이하 경남파라미타)는 1월 21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에서 '경남파라미타 정기총회 및 지도자회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경남파라미타 총재 도문 스님,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화상회의에는 경남파라미타 임원과 지도교사들이 동참했다.

경남파라미타는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아울러 새롭게 지회장 및 지도자 인사를 정해 발표했다.

경남파라미타 수석부회장에는 하병형 삼천포공업고 교감이 선임됐으며 부회장에는 김재정 밀양동강중 교장, 강창욱 생림중 교장, 권순희 이작초 교장이 맡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1월21일 '정기총회 및 지도자회의'를 진행했다.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 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2020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신입생 모집기간
대광사 종무소 접수 및 전화신청 후 입학원서 제출

■ 학 제 : 3년 6학기 과정 / 주야, 화·수·목
■ 교과배정 비율 : 이론70%, 실기30%
- 불교교리 30%, - 심리상담 40%, - 명상 30%
■ 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붓다의 깨달음을 천태법화의 수행관으로 편성한 공空, 가假, 중中 세단계를 점차로 닦아 삼제원융(三諦圓融)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한다.
■ 수 강 료 : 1학기당 17만원 / 기업 031 715 7000 / 사단법인행복명상
■ 수료후특전 : 명상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교 통 : 분당선, 신분당선 / 정자역, 미금역 3번출구 마을버스 1번, 2번,19번 / 오리역 7번출구 마을버스 19번

과 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 격	전형요강	수강료	자격증
空 기본 (1년)	【화요일】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학력,종교 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 면 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학기당 17만원	명상 상담 지도자 2급
		2학기	• 명상(이론, 실기병행)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요일】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1급
		2학기	• 성격심리학 • 유식과 명상				
中 전문 (1년)	【목요일】 [야간]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학기	• 자비명상				
요 가	【화요일】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 수	매월 3만원	-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30 Tel. 031)715-3000, Fax 031)715-3409 홈페이지 http:// www.daegwangsa.org